

#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이혜지	소속(학부/과)	메디컬IT융합공학과
파견 학기	2018년도 2학기		파견 국가	캐나다
파견 대학	Niagara College Welland			

##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원래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하는 것과,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생활하는 것을 매우 즐기는 성격이다. 그래서 원래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를 한 돈으로 방학 중마다 여행을 하고는 했는데, 친구가 이런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으니 신청을 하는 것이 어떨까하고 추천을 해줘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일반 여행은 아무나,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교환학생은 대학생일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여 지원을 하게 되었다.

##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할 점(상대학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상대학교 관련 서류, 비자발급, 항공권, 수강신청 등과 같은 출국 전 준비 사항은 학교에서 여는 오리엔테이션만 잘 참석하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신다.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은 신용카드 발급과 현지 유심이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비상용으로 들고 갈 때, 본인의 명의가 아닌 카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가족카드 신청을 하였고, 현지 유심을 신청하는 경우는 스마트텔(<https://www.smartel.co.kr/main.php>)이라는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였다. 숙소 같은 경우는 전부 홈스테일로 배정이 되는데, 이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외국인들의 경우, 김치냄새가 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처음에 한국에서 음식을 가지고 갈 때, 호스트에게 먼저 물어보거나 현지에서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호스트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는 경우, 홈메이트가 몇 명이 있는지 물어본 후, 작게나마 홈메이트들의 것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내가 교환학생을 했던 Niagara College Welland 캠퍼스는 Welland, Ontario에 위치한 대학이다. 나이아가라폭포까지는 차로 30-40분, 토론토까지는 2-3시간 정도 걸리는 지역이다. 매우 평화롭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며, 길가다가 눈만 마주치면 인사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다.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에서 버스가 일요일에는 안 다닌다고 해서 걱정을 하고 갔는데, 내가 갔을 때는 4시까지 운행하고 있어서 그렇게 큰 불편은 없었다. 버스를 이용할 때는 Transit이라는 어플을 이용하면 된다. 캠퍼스에서 20분 정도 걸으면, Seaway Mall이 나오는데 여기도 나름 가게가 많아서 처음에 필요한 것들은 여기서 사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웰랜드에는 한식집이 따로 있지는 않아서, 한식을 먹고 싶으면 버스를 타고 40분 거리에 위치한 Saint Catherine이라는 동네로 가야한다. 학교가 끝난 다음이나, 주말에 날을 잡고 가는 길에 있는 Pen Centre와 Saint Catherine을 가는 것을 추천한다. Pen Centre는 Seaway Mall보다 큰 쇼핑몰인데, 토론토만큼은 아니지만, 세포라도 있고, 영화관도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돌아다닐 만 하다.

##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나는 따로 전공수업을 듣지는 않았고, EAP(English for Academic Purpose) 프로그램만 들었다. EAP 프로그램은 Reading&Writing, Speaking&Listening, Grammar 수업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처음에 시험을 보

고 반배정이 된다. 나는 3C반이었는데, 레벨 3같은 경우는 편차가 매우 심하다. 어떤 학생은 영어로 말을 매우 능숙하게 하는 반면, 어떤 학생은 말을 아예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영어를 못한다고 해도 주위 반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따로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수업 중 궁금증이 생기거나 개인적으로 수업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과목 교수님들에게 여쭙보거나 도움을 청하면 매우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그 점이 매우 좋았다. 또한, 각 과목이 매우 알차게 이루어져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예를 들어, Speaking&Listening 수업의 경우, 주당 1시간씩 Lab수업이 있는데, 그 전에 배운 발음을 녹음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것을 확인해서 피드백을 주면, 그 다음 Lab 수업시간에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녹음을 다시 하고, 새로운 발음을 녹음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발음뿐만 아니라, 실생활 대화에서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가는지, 대화를 할 때는 어떠한 태도로 대화를 해야 하는지 유용한 수업이 많았던 것 같다. 수업시간 외에 학교생활에 대하여 궁금한 점은, Eric이라는 분에게 물어봤다. 이 분은 한국인 학생과 아시안 학생들을 담당하시는 분인데,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경우, 누구 직원을 찾아가라고 알려주시던가, 직접 해결책을 알려주신다 하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많이 되었다.

####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진짜 운인 것 같다. 일단 비용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에 750 달러로 동일하다. 하지만 호스트들과 외출을 하였을 경우 호스트가 전부 지불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호스트는 같이 외출을 하였어도 입장료부터, 식사까지 전부 학생들 보고 지불을 하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호스트를 잘 만나는 것이 관건인 것 같다. 홈스테이를 하게 되면, 홈메이트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홈메이트와 친해지게 되면 그 친구와 같은 나라에서 온 친구와 친해지거나 그 나라의 문화를 접할 경우가 많아지므로 친하게 지내는 것을 추천한다. 미리 규칙 같은 것을 정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샤워는 누가 먼저 할 것이며, 빨래는 누가 먼저 돌릴 것인지와 같은 작지만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서로 기분을 상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Niagara College는 교환학생 관련 프로그램이 매우 잘 되어 있었다. 주말마다 보트를 타러 가거나, 행사, 토론토 여행 등등 많은 프로그램을 신청만 하면 참여가 가능한데, EAP프로그램은 학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무료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친해질 수가 있었고,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국제학생 관련 직원 분들도 매우 친절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경우에도 '내가 영어를 못해서 저 사람이 화를 내지 않을까?'와 같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내가 학교 시설 중 가장 추천을 하고 싶은 곳은 '더 코어'라는 곳이다. 이 곳에서는 식사는 물론이고, 음주도 가능하며, 포켓볼과 탁구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길어졌을 경우, 여기서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또한,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이 곳에서 아침도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자주 가게 되었다.

####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일단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말하자면, 진짜 심하게 느낄 수 있다. 캐나다 생활과는 물론이고, 같은 반 학생들도 전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거리감을 만들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차이점을 '그래, 재네는 20년 가까이 저렇게 살아왔으니까.'라고 생각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말해주고, 고쳐줬으면 좋겠는 점을 말하다보면 타협점이 보였다. 상대 학생들도 외국으로 유학을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문화적 차이를 느낀다고 생각하고, 그 문화를 처음 접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서로 대화로 풀어나가니까 외국인 친구들과 더 많이 대화하게 되고, 서로의 문화

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서 대화거리도 풍부해지고 좋았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어느 나라에서 온 학생이든 편견을 가지고 대하면 오해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다른 나라의 문화나 종교를 배려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으며, 배려하는 법을 배운 것 같다. 편견을 가지지 않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면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것이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마지막 날, Graduation Party에서 반 친구들과 찍은 사진



우리 반은 시험이나 마지막 수업이 끝나면, 각자 음식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즐기는 Potluck Party를 했다. 이 사진은 학기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한 Potluck Party에서 찍은 사진이다. 다른 수업 선생님들도 와서 같이 즐기셨다.



이 사진은 가족들끼리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을 때, 세 명이 찍은 사진이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덴마크-일본-한국이다. 이렇게 세 명이서 밤에 주방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너무 떠들어서 엄마와 아빠가 '파티

좀 끝내!'라며 와서 방해할 한 적도 있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었다. 덴마크 친구가 오기 전에 필리핀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와 찍은 사진은 없어서 올리지 못했다.